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2 in D major, Op. 73
작곡가: Johannes Brahms (1833–1897)
작곡: 1877년 여름 Pörtschach am Wörthersee에서 주된 작곡; 9–10월 Lichtenthal에서 대부분의 총보 정서와 완결
초연: 1877년 12월 30일, Vienna Musikverein 대강당; Orchestra of the Philharmonic Concerts(
오늘날의 Vienna Philharmonic), Hans Richter 지휘
작품 범위: 4악장 교향곡
기준판: Robert Pascallㆍ Michael Struck 편, Johannes Brahms Gesamtausgabe Serie I, Band 2(2001); Breitkopf & Härtel 공연용 Urtext PB 16101, G. Henle 연구용 총보 HN 9853
전곡 소요 시간: 약 40–46분; 1악장 제시부 반복 시행 여부에 따라 약 5분 차이

IMSLP: Symphony No. 2, Op. 73

Wikipedia: Symphony No. 2 (Brahms)

Brahms의 교향곡 2번은 D major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네 악장 교향곡이다 . 1악장은 저현의 D–C♯–D에서 시작해 호른과 목관의 선율, 저금관 코랄, 넓은 현악 주제를 하나의 소나타 형식으로 전개한다. B major의 Adagio는 첼로 주제와 바순 대선율에서 출발해 변형된 재현으로 이어지고, G major의 3악장은 오보에 선율을 두 개의 빠른 박절 변형과 교대시킨다 . Finale는 현악의 조용한 첫 주제를 전합주의 운동으로 확장해 D major 의 금관 종결에 도달한다. 첫 악장에서 그림자를 드리웠던 트롬본과 튜바가 마지막 악장에서는 종결의
주역으로 바뀌면서 양 끝 악장의 저금관 배치가 완결된다.

전곡의 연결은 첫 마디의 세 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출발한다. D–C♯–D는 1악장의 여러 선율과 발전부를 만들고 , 확대되거나 리듬을 바꾼 모습으로 뒤의 악장에도 스며든다. 이 작은 재료와 박절의 어긋남, 장조 안으로
들어오는 단조 화성, 저금관의 제한된 진입이 밝은 D major와 어두운 음색을 한 작품 안에 함께 놓는다. 당대 청중은 햇빛과 자연을 떠올렸고 Brahms도 Wörthersee에서 선율이 넘쳐난다는 농담을 편지에 썼지만, 악보의 진행은 목가적 표면을 촘촘한 동기 작업과 음색 대비로 조직한다.

작곡과 초연

Brahms의 자필 작품목록은 이 교향곡을 Sommer 77 Pörtschach 로 기록한다. 신브람스전집의 서론 은 그가 1877년 6월 9일 Pörtschach에 도착해 여름 동안 주된 작곡을 진행했고, 9월 17일 Lichtenthal로 옮긴 뒤 대부분의 총보를 적어 약 10월 중순 마쳤다고 정리한다. 자필 총보의 종이와 쪽매김, 관현악법 수정은 총보 정서 순서가 1악장, 4악장, 2악장, 3악장이었음을 보여 준다.

초연은 처음 12월 9일로 계획됐으나 궁정오페라 단원들로 구성된 악단이 Goldschmidt의 Die sieben Todsünden와 Wagner의 Das Rheingold를 준비하느라 충분한 리허설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연기됐다. 12월

24ㆍ 27ㆍ 29일의 리허설 뒤 Hans Richter가 30일 제 4회 정기연주회에서 필사 총보로 지휘했다. Morgan

Library가 소장한 당시 프로그램 은 날짜ㆍ장소ㆍ지휘자와 연주 악단을 확인해 준다.

동시대 보고는 청중이 3악장을 즉시 다시 요구했고 Brahms가 여러 차례 무대로 불려 나왔다고 전한다. 초연에서 기록된 악장별 시간은 19분, 11분, 5분, 8분이었다. Brahms는 이듬해 1~2월 Leipzig, Amsterdam, Den Haag에서 작품을 직접 지휘했고, 3월에는 Franz Wüllner가 지휘한 Dresden 연주를 들었다. 이 초기 공연들은 출판 전 교정의 일부가 되었으며, 특히 Adagio 종결의 한 마디 삭제로 이어졌다.

출판 정보와 기준판

N. Simrock은 1878년 8월 초 총보, 관현악 파트, Brahms 자신의 피아노 네 손 편곡을 함께 출판했다. 판번호는 총보 8028, 파트 8029, 편곡 8030이다. 초판은 초연과 Brahms가 직접 지휘한 초기 공연 뒤의 본문을 담는다. Adagio에서는 초연 때 현행 m.103과 m.104 사이에 있던 한 마디가 1878년 2월 8일 이후 삭제되었고 , 3월 Dresden 연주와 8월 초판에는 짧아진 종결이 사용됐다.

Morgan Library의 자필 총보 와 별도로, 1악장에는 Franz Hlavaczek가 필사하고 Brahms가 광범위하게 고친

식자 원고가 남아 있다. Juilliard Manuscript Collection은 이 자료를 작곡가의 잉크ㆍ색연필ㆍ연필 수정이 들어간 Manuscript Stichvorlage 로 설명한다. 두 자료에는 Brahms가 초연 전까지 관현악과 내성의 결합을 계속 손질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Pascall과 Struck의 2001년 신브람스전집 판본은 1878년 총보 초판을 주자료로 삼고 자필 총보, 1악장 식자 원고, Brahms의 초판 소장본, 초판 파트와 피아노 네 손 자료들을 교정 대조자료로 사용한다. 이 작업은 음정 오류와 함께 셈여림ㆍ아티큘레이션의 차이를 바로잡고 작곡 과정의 수정도 복원했다. Brahms는 처음에 알토ㆍ테너 트롬본과 베이스 트롬본 또는 튜바의 세 저금관을 구상했으나 Finale 코다를 쓰는 동안 세
트롬본과 튜바를 모두 쓰기로 정하고, 1악장과 Finale 앞부분을 소급해 고쳤다. 1악장 코다의 호른 독주 아래 현악도 단순한 화성 반주에서 주요 동기들이 얽힌 대위적 반주로 다시 썼다. 아래의 판본ㆍ편성ㆍ구조 설명은
이 신판을 기준으로 한다.

소요 시간

Breitkopf & Härtel은 신판의 소요 시간을 약 43분으로 제시한다. 공식 음반 표본에서는 1악장 제시부 반복을 생략한 연주가 전곡 약 4041분, 반복한 연주가 약 4446분에 놓인다. 반복을 시행하면 악장별 시간은 대체로 I 약 20분, II 약 910분, III 약 5분, IV 약 910분이다. 반복을 생략하면 1악장은 약 15분으로 짧아진다.

1877년 초연의 19ㆍ 11ㆍ 5ㆍ 8분과 2023년 Edward Gardner/Bergen Philharmonic Orchestra 녹음의 18 분 18초ㆍ 8분 16초ㆍ 4분 57초ㆍ 9분 26초는 서로 다른 시대의 약 41~43분 표본을 이룬다. 초 단위 차이는 원자료 아카이브에 보관하고, 악장 설명에는 분 단위의 중심값만 사용한다.

편성

구분	편성
Woodwinds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in A; 2 bassoons
Brass	4 horns; 2 trumpets; 3 trombones; tuba
Percussion	timpani
Strings	violin I · II; viola; violoncello; contrabass

원파트에서 호른 I–II는 D, B basso, G, 호른 III–IV는 E, C basso로 악장과 대목에 따라 바뀌며 , 트럼펫은 D와 B로 기보된다 . 여기서 독일식 음명 `B`는 B♭를 뜻한다 . 3악장에서는 트롬본과 튜바가 쉬고 , 양 끝 악장에서 네 저금관의 배치가 작품의 큰 음색 대비를 만든다 .

악장별 정보

I. *Allegro non troppo* — D major, 약 15분 또는 반복 시 약 20분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D–C♯–D 뒤에 호른과 목관이 응답하며 도입 없이 소나타 형식의 첫 주제군이 열린다 . 저현과 관악의 구는 한 마디 어긋나 있어 3/4의 중심을 곧바로 고정하지 않는다 . 이 박절의 비껴감은 뒤의 당김음과 발전부에서 더 큰 긴장을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 이어지는 바이올린 선율도 첫 세 음에서 자라나며 , 팀파니 트레몰로 뒤에는 세 트롬본과 튜바가 여린 코랄을 놓는다 .

제 2주제군은 비올라와 첼로의 `cantando e dolce` 선율로 시작한다 . 선율은 A major를 향하지만 F♯ minor의 화성색을 먼저 띠고 , 곧 관악과 현악의 대화 , 당김음 반주 , 강한 전합주로 확대된다 . 제시부 반복은 이 넓은 주제군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별도 연결부를 포함한다 . 발전부에서는 첫 주제와 세 음 동기가 분절되고 푸가토와 금관 진입이 겹치며 , 재현부로 물러날 때 D–C♯–D가 늘어난 음가로 나타난다 .

코다에서는 호른 독주가 첫 주제 재료를 길게 되돌린다 . 그 아래 현악은 초연 전 개작된 대위적 반주로 여러 동기를 엮고 , 목관의 회고와 `animato`가 조용한 종결을 준비한다 . 이 결말은 악장 앞부분의 큰 전합주와 다른 속도로 닫히며 , Brahms가 Otto Dessoff에게 1악장의 끝을 특히 차분하게 원한다고 설명한 연주 자료와도 연결된다 .

II. *Adagio non troppo – L’istesso tempo, ma grazioso* — B major, 약 9~10분

첼로의 넓고 굴곡진 주제와 바순 대선율이 동시에 출발한다 . 처음부터 선율과 베이스 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 목관의 응답이 들어오면서 B major 안의 반음계와 리듬 긴장이 드러난다 . `L’istesso tempo, ma grazioso`에서는 12/8의 당김음 목관 주제가 대조를 만들며 , 현악 전이가 짧고 격렬한 발전 구간으로 이어진다 .

시작 주제가 돌아올 때 관현악과 진행은 이미 바뀌어 있다 . 두 번째 주제는 규범적인 소나타 형식처럼 그대로 재현되지 않고 , 앞서 남은 동기들이 다시 발전하면서 종결로 향한다 . 이 때문에 이 악장은 변형된 소나타 형식으로 설명하는 편이 실제 진행에 가깝다 . 초연 뒤 삭제된 끝에서 두 번째 마디도 이 종결을 Brahms가

공연 속에서 다시 판단한 흔적이다.

III. Allegretto grazioso (Quasi Andantino) – Presto ma non assai — G major, 약 5분

오보에가 피치카토 첼로 위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느린 주부가 두 개의 빠른 삽입부와 교대해 ABACA의 5부 구조를 만든다. 첫 Presto ma non assai 는 주부의 재료를 2/4의 빠른 운동으로 바꾸며, 주부가 돌아온 뒤 두 번째 빠른 단락은 3/8에서 같은 재료를 다시 변형한다. 빠른 부분들은 독립된 새 주제를 나란히 놓기보다
오보에 선율의 리듬과 박자를 바꾸어 한 악장의 대비를 만든다.

주부도 돌아올 때마다 관현악과 밀도가 달라진다. 저금관을 제외한 비교적 가벼운 편성, 목관 사이의 짧은 응답 , 현악의 민첩한 박절 변화가 앞선 두 악장의 긴 호흡을 압축한다. 초연에서 이 악장이 즉시 반복된 사실은
이러한 간결한 구조가 초기 청중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 준다.

IV. Allegro con spirito — D major, 약 9~10분

현악이 sotto voce로 빠른 첫 주제를 시작한다. 여린 음향 안에서 진행하던 음악은 전합주의 forte로 갑자기 열리고, 클라리넷의 연결을 거쳐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넓은 두 번째 주제로 이동한다. 제시부 끝의 당김음과
비어 있는 박은 운동을 잠시 끊지만, 첫 주제가 다시 나타나며 발전부로 들어간다.

발전부에서는 첫 주제가 단조 영역에서 조각나고 Tranquillo 의 정지된 음향으로 가라앉는다 . 트롬본과
튜바는 여린 음향으로 돌아와 재현부의 D major를 준비한다. 재현 뒤 코다는 D minor의 저금관으로 시작해
여러 조성을 통과하며 두 번째 발전부처럼 팽창하고, Tranquillo 재료가 빠른 움직임으로 바뀌면서 트롬본의 상승과 D major 종지로 이어진다. 첫 악장의 저금관 코랄과 같은 악기군이 여기서는 전곡을 닫는 밝은 음향을 맡는다.

지휘자 기록과 연주 선택

Henle HN 9853의 서문 은 Brahms가 Otto Dessoff의 질문에 답한 빠르기 비교를 전한다. Brahms는 Adagio 의 4분음표를 Beethoven의 String Quartet No. 7, Op. 59 No. 1 Adagio의 8분음표에, 3악장의 4분음표를 Beethoven Symphony No. 1 Andante의 8분음표에 견주었다. 1ㆍ 3악장은 실제로 차분하게, 특히 종결에서 차분하게 진행되기를 원했고, 1악장의 quasi rit. 와 Adagio 12/8의 움직임은 문맥에서 느껴지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고정된 메트로놈 수치보다 비교 작품과 악장 내부의 관계를 전한 작곡가의 직접 자료다.

1879년 Vincenz Lachner가 첫 악장의 밝은 시작에 팀파니와 저금관이 들어오는 까닭을 묻자, Brahms는 트롬본 없이 쓰려고 했지만 첫 진입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여름에 쓴 모테트 Warum ist das Licht gegeben dem Mühseligen?, Op. 74 No. 1과 자신의 우울한 성향을 언급하면서도 , 마지막에는 그

대목을 지나치게 비극적이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덧붙였다. Riccardo Chailly는 Gramophone의

지휘자 대담 에서 이 교향곡에 어둠과 그림자가 스며 있고 저음역과 크레셴도ㆍ디미누엔도의 굴곡이 그것을 만든다고 보며, Finale의 첫 sotto voce 도 뒤의 폭발을 준비하는 불길한 음향으로 들었다. 작곡가의 경계와 Chailly의 독해를 함께 놓으면 어두운 색채는 분명히 드러내되 전곡을 무겁게 부풀리는 선택과는 구별된다.

첫 호른 주제의 아티큘레이션에는 별도의 역사적 전승이 남아 있다. Walter Blume가 1933년에 출판한 Fritz Steinbach의 표기와 회고는 1914–15년의 수업 및 지금은 사라진 총보를 바탕으로 하므로, Brahms의 직접

지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John Eliot Gardiner는 SDG703 공식 해설 에서 이 전승에 따라 슬러로 묶인 두 음 중 뒤 음을 짧게 하고 첫 두 마디의 셋째 박과 마디선에 작은 분리와 호흡을 주었다. 이는 주제를 한
덩어리의 레가토로 평평하게 잇는 관습을 교정하지만 , Gardiner 자신도 매 마디를 토막 내듯 적용하면 선율이 파편화된다고 경계한다. 이 자료가 남기는 선택의 초점은 짧은 음의 말끝과 네 마디 호흡 사이의 균형에 있다.

1악장 제시부 반복은 같은 전승 안에서도 결론이 갈린다. Blume는 Steinbach가 1ㆍ 2번 교향곡에서 반복을

생략했다고 전한다. 1895년 Felix Weingartner의 이 작품 지휘를 Brahms가 호평한 기록 도 남아 있지만, Weingartner가 Brahms 앞에서 반복을 생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그의 후기 생략 관행을 작곡가의
승인으로 소급할 수 없다. Steinbach 자료를 연구한 Charles Mackerras는 2번의 반복을 네 교향곡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로 보고 자신의 녹음에서 시행했다. 같은 Gramophone 기사 에서 Christoph Eschenbach는 반복해야 비전원적인 발전부와 길게 마련된 되돌림이 충분한 비례를 얻어 악장이 형태와

깊이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반면 Georg Solti는 1978–79년 녹음의 라이너 노트 에서 실연의 반복은 시간과 상황에 따른 지휘자의 재량으로 두면서, 녹음에서는 첫째ㆍ둘째 종결부의 차이를 보존하려고 1~3번의 반복을 모두 시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복의 유무와, 반복할 경우 두 번째 통과의 어조와 도착점을 어떻게
달리할지는 서로 분리된 두 선택이다.

빠르기는 홀의 음향과도 함께 결정된다. Bernard Haitink는 1997년 Chicago 리허설 뒤 인터뷰 에서 약 5년 전 잔향이 길고 큰 Boston의 홀에서는 이 작품을 더 느리게 지휘했지만 , Chicago에서 같은 빠르기를 취하면 음악이 숨 쉬지 못한다고 판단해 더 빠르게 조정했다고 회고했다. Benjamin Zander는 자신의 해설과 지휘

수업 에서 1악장 3/4의 각 마디를 하나의 큰 박으로 느끼고 네 마디를 네 박짜리 큰 프레이즈로 묶으며, 첫 마디를 구조 전체를 여는 준비박처럼 다룬다. 두 번째 주제도 빈 왈츠의 흐름으로 크게 하나에 지휘한다. 실제 박자는 3/4로 유지된다. 이 큰 지휘 층위는 세 박을 일일이 표시할 때 생길 수 있는 정체를 피하고 문장의
장거리 호흡을 세운다.

셈여림과 편성에서는 어두운 색채를 절제된 음량과 투명한 성부 균형으로 구체화한 기록이 이어진다. Haitink 는 1악장 두 번째 주제가 piano dolce 이지 forte cantabile 가 아니며, 2악장 첫머리도 poco forte 이므로 Tchaikovsky Symphony No. 6 Finale 같은 강도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olti는 평소보다 현악 수를 조금 줄이고, 악보에 적힌 두 명의 목관을 추가 인원으로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두어 2ㆍ 3악장의
실내악적 성격과 구조적 선명도를 드러내려 했다. Gardiner의 2007년 연주는 62명 규모였지만 , 그는 Meiningen의 49명을 Brahms가 정한 유일한 이상으로 보지 않았고 Brahms가 1878년 Hamburg에서 107 명을 지휘한 사례도 함께 들었다. 두 기록은 고정 인원보다 실제 악기와 홀에서 내성과 목관의 선이 묻히지
않는 균형에 초점을 둔다.

Bruno Walter의 1958년 Vancouver CBC 리허설은 같은 재료의 회귀를 다르게 만드는 사례를 남긴다.

Ryding과 Pechefsky의 Walter 전기 는 1악장 첫 주제의 플루트 높은 F에서 Walter가 첫 제시에는 머물고
다음 동일 지점에서는 거의 강조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분석한다. 반복되는 선율에 같은 루바토를 복제하지 않고, 첫 등장과 회귀의 기능에 따라 음 하나의 무게를 바꾼 기록이다.

주요 레코딩

Bruno Walter / Philharmonic-Symphony Orchestra of New York (1953, Columbia ML 5125). 1954 *The New Yorker* Walter Brahms . 1958 New York Walter Brahms .

Carlo Maria Giulini / Los Angeles Philharmonic (1980 , 1981 , Deutsche Grammophon 400 066). ClassicsToday 10/10 Walter Finale .

Iván Fischer / Budapest Festival Orchestra (2014, Channel Classics CCS SA 33514). *The Observer* Nicholas Kenyon , Finale Fischer .

- Johannes Brahms Gesamtausgabe: *Symphonie Nr. 2 D-Dur op. 73* —
- G. Henle HN 9853 — Brahms
- Breitkopf & Härtel PB 16101 — Urtext ,
- The Morgan Library & Museum — 1877 12 30
- Boston Symphony Orchestra: Jan Swafford — Lachner
- UC Davis Arts: D. Kern Holoman — , ,
- Houston Symphony: *Et in Arcadia ego* — 1
- Soli Deo Gloria SDG703 — Gardiner Steinbach–Blume
- *Gramophone*: Brahms orchestral music guide — Mackerras Eschenbach Chailly Haitink
- Chicago Symphony Orchestra Rosenthal Archives: Solti Brahms — ,
- Bernard Haitink —
- Benjamin Zander 1 —
- Chandos CHSA 5248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24 UTC by
Updated 2026-10-04 10:05:24 UTC by